

# 자동차산업 지원 · 고용 유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김제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을 몰고 올 것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영향을 받는 소비 영역이 불황을 주도 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관련 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파산과 합병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비껴갈 수는 없었다. 지난 6월 실업률은 4.4%로 지난 해 12월 대비 1.3% 증가했고, 고용률 역시 60%로 1.4%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김제시도 마찬가지였다. 관내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금속가공(19%), 식품(19%), 자동차 관련 업종(12%), 비금속 광물제조업(11%)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 19라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제조업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관내 자동차 관련 업종이 수출 부진과 내수 판매 둔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속에서도 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처방 및 지원책을 발굴하여 지역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먼저, 코로나가 장기화 되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산업·농공단지 9개소에 대한 기업인 간담회와 함께 30여개 기업에 대한 개별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72건의 건의사항 중 법적 검토가 필요한 4가지 사항을 제외한 68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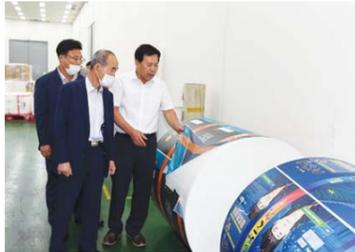
### 투자선도지구 지정, 자기인증센터 증축으로 특장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 기를 마련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산업분야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었다. 백구특장차단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입주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특장차산업단지 내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증축과 함께 2022년 조성 목표인 백구특장차 2단지를 통해 향후 8,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향한 가정간편식과 마스크 제조업체, 적극 지원으로 비약적 성장 이끌어내

또한 집콕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른바



업체가 가동 및 준비중에 있어 400여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특히 김제 자유무역지역내 마스크업체인 (주)소리소의 경우에는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과 북미온라인 시장개척단 사업을 적기에 지원해 현재 생산 안착과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9월 중 미국 시카고와 캐나다 밴쿠버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바라보는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

안정된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30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김제고용안정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함에 따라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청년인턴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6억9,000만원의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편성, 132개 기업과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시에서는 어



지난 6~7월 산업·농공단지 기업인 간담회 등 통해 소통 이어가

백구 특장차단지 '전국 유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집콕 문화 자리 잡으면서 가정 간편식 생산 업체 대상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적기 지원

고용안정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지원 사업 지속 확대

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해 103개 기업에 융자 지원을 했으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 퇴직 인력 재취업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 /김제=곽노태 기자

### ▶ 박준배 시장의 포부

## “기업 육성 · 지원조례 제정 경쟁력 높일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 발 앞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발 앞서 도와



제2산단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미래 성장기반 탄탄하게 구축

주는 것이 시의 역활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지원산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제2산단 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김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매일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예방수칙 준수하여 코로나19 우리함께 이겨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및 타인과의 만남자제)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1339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